남원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과 주거용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외벽도색, 옥외 하수도 교체, 옥상 보수, 옥외 가로등 보수, CCTV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으면, 향후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해 6월말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영규 기자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남원시는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8만1,745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8일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료 3,200만원을 납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익사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의 사망·상해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당사자나 대리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박영규 기자

고창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고창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9억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또는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규모 건축물의 지붕재,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200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2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턴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주택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소규모(200㎡이하) 건축물은 철거비를 전액 지원하고, 일반 가구의 주택은 1동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우선지원가구의 지붕개량 지원비용도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영자 팀장은 "유해물질인 석면 철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지역인재 육성 파격적 지원

올해 장학사업에 56억원 투입

고창=안병철 기자

올해 24년째를 맞는 고창군장학재단이 으뜸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올해는 성적'향상'장학금을 신설하고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 키우기'예산으로 5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신설된 성적장학금은 전년대비 눈에 띄는 성적향상을 이룬 중·고등학생도 학교장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사람 잘 키우는 도시' 군이 인구감소 위기극복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파격적 교육사업에 나서며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창을 빛낼 큰 사람 키워내기에 집중하는 것.

올해 분야별로 △교육재정사업(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급식비지원, 으뜸인재육성사업, 기숙형고교지원, 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등) 29억900만원 △지역인재양성사업(맞춤형교육 및 농산어촌방과후학교지원, 영어공교육완성을 위한 특수시책, 전북의별육성사업, 창의적체험활동지원, 초·중·고등학생복지지원 등) 13억8000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등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신입생 전체 학생 대상 책가방 구입비(10만원) 지원도 계속되며 지난해 첫 시행 돼 큰 호응을 얻었던 '대학진학축하금' 역시 올해 재수생과 고졸검정고시 합격자까지 확대 지급한다.

4자녀 이상이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장학금이 신설되며 신청일 기준 4자녀 이상이 초·중·고·대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 자녀 중 전문대 이상 대학에 2명 이상이 재학하고 있는 세대의 상급학생에게 장학금 150만원씩을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힘쓸 방침이다.

고창군장학재단은 지난해 △성적우수장학금(고등학생 30명 1500만원, 대학생 40명 5000만원) △예·체·기능 분야 장학금(개인 26명과 4개 단체 5000만원) △농생명인재육성장학금(10명, 510만원) 등 총 1억201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고창군장학재단을 통해 지난 연말 기준 기업체, 개인,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2억8700여만원의 역대 최고 기탁금이 접수됐으며 농사 중에 제일인 자식농사를 위한 염원에 함께하자는 의미로 작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고창지역 꿈나무를 위한 교육사업에 각계 각층의 군민들이 동참해 나눔과 기부천국 고창을 실감케 했다.

이에 더해 고창장학숙(서울, 전주)역시 9년 동안 1500여명 고창군 인재들의 쉼터로써 제 몫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에서 자식 키우면 공부도 잘하고, 인재가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자식 키우기 위해 찾아오는 고창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며 "올해도 '한반도 첫 수도' 위대한 고창의 정신을 간직한 인재를 키워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많은 관심과 사랑, 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역포커스

전주 혁신도시에 '임실N치즈 핫도그' 오픈

임실군, 도시민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 맛 알리기 총력

대한민국 치즈 대표브랜드'임실N치즈'로 만든 명품 수제 핫도그가 도시권 소비자 공략을 위해 전주 혁신도시에 첫 진출했다.

군은 27일 전주 혁신도시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중심가에 '임실N치즈 핫도그' 판매장 1호점 오픈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날 오픈식은 심 민 군수, 진남근 군의장을 비롯해 임실N치즈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임실N치즈 핫도그 1호점은 관내 기업으로 수제 소시지 및 핫도그 전문업체인 ㈜친한팜과 임실N치즈 유통·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사)임실엔치즈 클러스터가 유제품 전용 판매장 계약을 체결하고 주재료인 치즈는 물론 요구르트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매장이다.

메뉴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하여 소시지와 치즈를 고객이 직접 골라 주문할 수 있는 10종의 핫도그와 사이드 메뉴, 음료 등이다

모든 핫도그는 명품 치즈인 임실N치즈와 무항생제 소시지, 신선한 채소들이 들어가 있어 맛과 영양이 풍부하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정승관 대표는 "임실N치즈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임실N치즈 핫도그 판매점 오픈을 계기로 도시민들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의 탁월한 맛을 알리는 한편, 판매 활성화와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대도시권 소비자들에게 임실N치즈 유제품과 농특산물을 판매·홍보·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형 판매장 개설도 추진 중이다.

올해 3월 중 전북도청 근처에 치즈카페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치즈카페를 개설하여 임실N치즈 알리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길수 기자

고창군, 농어민공익수당 양봉-어민까지 확대

고창군의 농민수당이 전국적 대세로 자리잡은데 이어 올해부터는 농어민공익수당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는 고창군이 다음달부터 오는 4월까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 접수하며 연 1회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신청 자격을 갖춘 농어업인들에게 지급해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을 펼치기 때문이다.

군은 2019년 전북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의 전국적 확산에 일조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8개 광역지자체와 37개 기초지자체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21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심사중이다.

따라서 군은 지난해부터 전북도와 울력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봉농가, 어가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을 확대해 모두 1만793농어가에 64억 7,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700여 농가에 4억7000만원이 증가,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이 처음 시작한 전북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안병철 기자

임실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7,000장 배부

임실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철통방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타 자치단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검사 결과 대상자 112명(버스 58명, 택시 54명) 전원이 음성으로 판명됐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안을 원천 차단하고자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KF94) 7천장을 배부했다. 군은 대중교통 운

수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박길수 기자